

LOGISIGHT

WEEKLY INTELLIGENCE

WEEKLY REGIONAL ANALYSIS · FAR EAST · CIS

극동·CIS 물류 현황 분석

보고기간 08/10~08/16

1. 러시아·CIS 물류 허브 타격과 대응: 우스트루가 항만 피격과 해운 안보 위협
2. 중앙아시아 물류 경로 다변화: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와 TITR 부상
3. 남아시아 연결 확대: 러시아-파키스탄 직통 화물철도 추진

LOGISIGHT 인텔리전스팀

2026-W33

종합

이번 주 극동 권역에서는 러시아의 서부 항만 피격과 해운 안보 위협 고조 속에서, 러시아와 중앙아시아 및 남아시아를 연결하는 대체 물류 경로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으로 우스트루가 항만이 타격을 입고 유럽의 러시아 선박 압류에 대한 보복 경고가 이어지면서 기존 발트해 노선의 취약성이 드러났다. 이에 러시아는 중간 회랑과 남아시아 연결을 강화하여 물류 다변화를 모색하는 흐름이 뚜렷하다.

중앙아시아에서는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의 현대화와 중국-카자흐스탄 협력으로 중간 회랑(TITR)의 처리 능력이 확대되면서 유럽행 화물의 대안 경로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남아시아 방면에서는 러시아-파키스탄 직통 화물철도 추진으로 인도 우회 경로를 확보하고, 벨라루스와 주변국을 포함한 국제 화물 회랑으로의 확장 가능성이 열리고 있다. 이러한 다각화 움직임은 서방 제재와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응하기 위한 러시아의 전략적 선택으로 평가되며, 향후 유라시아 물류 지형의 재편을 가속할 것으로 전망됨.

러시아·CIS 물류 허브 타격과 대응: 우스트루가 항만 피격과 해운 안보 위협

우크라이나의 드론 공격이 러시아 서부 핵심 항만인 우스트루가까지 확대되면서 러시아 물류 체계에 직접적 타격이 가해졌고, 이에 대해 푸틴 대통령은 유럽의 러시아 선박 압류에 대해 보복을 경고하며 해운 안보 위협이 고조되고 있다.

러시아 발트해 최대 원유 수출항인 우스트루가 항만이 우크라이나 드론 공격을 받아 화재가 발생했다. 레닌그라드주 당국은 공격 직후 진화를 완료하고 인명 피해는 없다고 밝혔으나, 시설 피해 규모와 물동량 차질 여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 항만은 러시아산 원유와 석유제품의 주요 수출 거점으로, 공격으로 인해 단기적으로 선적 일정이 지연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이번 공격은 러시아 서부 물류 인프라에 대한 공격이 단순한 군사적 목표를 넘어 경제적 핵심 시설로 확대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우스트루가 항만은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서쪽으로 약 110km 떨어진 발트해 연안에 위치하며, 하룻밤 사이 레닌그라드주 일대에서만 드론 50기 이상이 격추되는 등 대규모 공세가 이뤄졌다. 인근 트베리주에서는 대형 온라인 유통업체의 창고가 손상되는 등 민간 물류 거점까지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대응하여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유럽 국가들의 러시아 선박 압류에 대해 '해적질'이라 규정하고 보복을 시사했다. 유럽 연합이 최근 제재 회피를 시도하는 그림자함대 선박의 몰수·매각 메커니즘을 채택하자, 푸틴은 러시아 선박이 압류된 해역에 국한하지 않고 '필요하고 적절한 곳'에서 보복하겠다고 밝혔다. 특히 태평양함대 책임 구역에서의 행동 가능성을 언급하며, 이미 아시아-태평양 해상 교통로에 대한 정밀 분석을 실시했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긴장 고조는 글로벌 해운 및 물류 시장에 심각한 불확실성을 야기한다. 러시아와 유럽 간 해상 물류는 물론, 제3국 선박의 안전한 운항까지 위협받을 수 있다. 특히 러시아가 태평양 해역에서 비우호국 선박을 상대로 보복에 나설 경우 아시아-유럽 항로의 상당 부분이 영향을 받을 수 있어, 해운 업계는 리스크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 우스트루가 항만은 러시아 발트해 주요 원유 수출 거점으로, 이번 드론 공격으로 화재가 발생하고 선적 일정 조정 가능성이 제기됨
- 레닌그라드주 일대에서 하룻밤 사이 드론 50기 이상이 격추되는 등 공격 강도가 높아짐
- 푸틴 대통령은 유럽의 러시아 선박 압류에 대해 '해적질'로 규정하고, 압류 해역과 무관하게 보복할 것이라고 경고함
- 러시아 태평양함대가 4월 24일~8월 6일 사이 쿠릴열도 인근 EEZ를 통과한 선박 1001척을 분석, 이 중 379척이 비우호국 국적 선박으로 파악됨
- 유럽연합과 영국은 올해 초부터 러시아산 원유 운반 유조선 5척을 억류하는 등 제재 집행을 강화하고 있음

전망

당분간 러시아 서부 항만에 대한 드론 공격 위협이 지속되면서 물류 차질이 간헐적으로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푸틴의 보복 경고는 실행 여부와 관계없이 해운 업계의 불안을 증폭시켜, 특히 러시아와 거래하는 선사들의 리스크 프리미엄 상승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유럽과 러시아 간 해상 안보 긴장이 장기화될 경우, 대체 항로 모색과 운송비 상승 등 글로벌 물류 시장 전반에 부담이 가중될 것이다.

시사점

화주 — 러시아발 원유·석유제품 및 일반 화물의 공급망 중단 가능성이 높아져 대체 공급망 확보와 재고 정책 재검토가 필요함

포워더 — 발트해 및 극동 러시아 항로의 운송 지연과 보안 위험 증가로 인해 대체 경로와 보험 조건을 재협상해야 함

항만·선사 — 러시아 항만 기항 시 안전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서방 제재와 러시아의 보복 위협 사이에서 노선 전략을 재조정해야 함

참고자료: The Moscow Times, Fire breaks out at Ust-Luga port after Ukrainian drone attack · The Moscow Times, Putin threatens retaliation if Europe seizes Russian ships (검색일: 2026-08-16)

중앙아시아 물류 경로 다변화: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와 TITR 부상

바쿠-트빌리시-카르스(BTK) 철도의 현대화 개통과 중국-카자흐스탄 협력 강화로 중앙아시아 경유 유럽행 물류 경로인 중간 회랑(TITR)의 처리 능력과 물동량이 빠르게 확대되고 있다.

카자흐스탄 정부는 2024년 6월 2일 조지아 아할칼라키역에서 BTK 철도의 현대화 개통식을 개최했다. 이 노선은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를 직접 연결하며, 총연장 827km로 2017년 시험 운행 이후 2023년 5월부터 1년간 재건 공사를 거쳐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이 기존 100만t에서 500만t으로 5배 증가했다. 카자흐스탄은 이번 개통으로 자국 화물의 유럽 진출을 위한 추가 경로를 확보하고 환적 물동량 증대를 기대하고 있다.

BTK 철도의 처리 능력 확대는 중간 회랑의 핵심 병목 구간을 완화할 것으로 평가된다. 이 노선은 카스피해 횡단 국제운송로(TITR)의 필수 구간으로, 기존에는 제한된 용량으로 인해 운송 지연과 운임 상승 요인으로 작용했다. 그러나 이번 현대화로 연간 500만t의 화물 처리가 가능해짐에 따라 유럽행 화물의 운송 시간 단축과 운임 안정화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과 카자흐스탄 간 협력도 TITR 확대에 속도를 더하고 있다. KTZ 익스프레스와 중국 청두국제철도항 투자개발 유한공사는 2024년 6월 회담을 통해 트랜스카스피안 국제운송루트 개발과 유럽행 물동량 확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 추진에 합의했다. 청두항은 중국 쓰촨성의 대표적 물류 허브로, 중국 서부 내륙 수출 화물의 주요 출발지이다. 이번 합의로 중국발 화물이 카자흐스탄 경유 TITR 노선으로 전환될 경우, 중앙아시아 구간 철도 인프라 활용도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 바쿠-트빌리시-카르스(BTK) 철도는 2024년 6월 현대화 개통을 완료했으며, 연간 화물 처리 능력이 100만t에서 500만t으로 5배 증가함.
- BTK 철도는 총연장 827km로 아제르바이잔, 조지아, 튀르키예를 연결하며, 카스피해 횡단 국제운송로(TITR)의 핵심 구간임.
- KTZ 익스프레스와 중국 청두항은 트랜스카스피안 루트 개발과 유럽행 물동량 확대를 위한 공동 프로젝트에 합의함.
- 청두항은 중국 서부 내륙의 대표적 물류 허브로, 중국철도익스프레스 노선의 핵심 출발지 중 하나임.
- 시장에서는 BTK 철도 확장이 유럽행 화물의 운송 시간 단축과 운임 안정화에 기여할 것으로 관측함.

전망

BTK 철도의 처리 능력 확대와 중국발 물동량 유치 노력으로 중간 회랑(TITR)의 물동량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이다. 특히 카자흐스탄은 핵심 경유국으로서의 입지를 더욱 공고히 하고, 유럽-아시아 간 물류 허브로 도약할 것으로 기대된다. 다만 실제 물동량 증가 속도는 유럽 수요와 대체 경로인 북부 회랑(러시아 경유)의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시사점

하주 — TITR 경유 유럽행 운송 시 과거 대비 운송 시간 단축과 운임 안정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으나, 실제 서비스 수준은 향후 수요 증가에 따른 혼잡 여부에 유의해야 함.

포워드 — 중국 서부발 유럽행 화물의 TITR 전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카자흐스탄 경유 복합운송 상품 개발 및 선점 경쟁이 심화될 전망이다.

항만·선사 — 카스피해 횡단 구간의 선박 수요 증가가 예상되므로, 해당 구간의 선박 투입 및 항만 처리 능력 확충이 필요함.

참고자료: Transport Corridors, 카자흐, 현대화된 바쿠-트빌리시-카르스 철도 개통...물동량 확대 기대 · Transport Corridors, KTZ 익스프레스, 청두항과 유럽행 물동량 확대 합의 (검색일: 2026-08-16)

남아시아 연결 확대: 러시아-파키스탄 직통 화물철도 추진

러시아와 파키스탄이 모스크바-파이살라바드-카라치를 잇는 첫 직통 화물철도 개설을 추진하며, 벨라루스 참여와 주변국 화물 유치를 통해 국제 화물 회랑으로의 확장을 모색함.

러시아와 파키스탄이 양국 간 첫 직통 화물 철도 노선 개설을 준비 중임. 알베르트 호레프 주파키스탄 러시아 대사에 따르면 양측은 운송 서비스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노선 주변 국가들로부터 화물을 유치할 기업을 물색하고 있음. 이 노선은 모스크바에서 파키스탄의 파이살라바드와 카라치를 잇는 양방향 운송을 목표로 하며, 벨라루스의 참여 가능성도 함께 검토되고 있음.

이번 직통 철도 계획은 2025년과 2026년 초 지역 내 지정학적 긴장 고조로 수차례 연기된 바 있으나, 러시아 대사는 이제 실질적 이행 절차에 속도를 내고 있다고 밝힘. 그동안 러시아와 파키스탄은 안정적인 육상 운송 채널 부재로 교역 확대에 어려움을 겪어왔음. 직통 철도가 개통되면 양국 간 직접적인 무역 및 운송 연결 고리가 강화될 전망이다.

양측은 이 노선을 단순한 양자 간 연결을 넘어 향후 새로운 국제 화물 회랑의 일부로 발전시키는 방안을 구상 중임. 노선 경로 상에 위치한 국가들의 시장을 연결하는 추가적인 육상 운송 채널로서의 잠재력을 고려한 것임. 글로벌 공급망 전문가들은 이 프로젝트가 현실화될 경우 유라시아 내륙 물류 지형에 적지 않은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음.

- 러-파키스탄 직통 화물철도는 모스크바에서 파이살라바드와 카라치를 연결하는 양방향 노선으로 계획됨.
- 양측은 운송 서비스 계약 체결을 마무리하는 단계이며, 벨라루스 참여 가능성도 검토 중임.
- 2025년과 2026년 초 지정학적 긴장으로 노선 개설이 수차례 연기되었으나 현재 이행 절차에 속도가 붙고 있음.
- 노선 개통 시 러시아-파키스탄 간 직접 무역·운송 연결이 강화되고, 향후 국제 화물 회랑으로 발전시킬 구상임.

전망

직통 철도가 개통되면 러시아와 파키스탄 간 교역량이 증가하고, 남아시아와 유라시아 내륙을 잇는 새로운 화물 회랑이 형성될 가능성이 높음. 다만 경유국들의 정치적 안정성과 인프라 협력 여부가 성패를 좌우할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벨라루스 및 주변국 화물 유치가 성공하면 지역 물류 허브로서의 입지가 강화될 수 있음.

시사점

화주 — 러시아-파키스탄 직통 철도가 개통되면 육상 운송 시간과 비용이 절감되어 남아시아 및 중앙아시아 시장 접근성이 개선될 수 있음.

포워드 — 신규 노선 개설에 따라 러시아-파키스탄 간 화물 운송 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관련 운송 상품 개발과 파트너십 구축이 필요함.

항만·선사 — 파키스탄 카라치항과 러시아 내륙 철도가 연결되면 해상-철도 복합운송 수요가 증가할 수 있어 항만 및 선사는 환적 화물 유치 전략을 검토해야 함.